

신항락 칼럼

138년 전의 공직윤리



이사·주필

19세기 말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1000명의 영국 공무원이 3억의 인도인을 다스릴 수 있었던 비결은 지금에 와서도 빛이 난다. 당시 인도는(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포함)는 땅도 광활했지만 그 땅은 인구에, 언어와 종교·인종도 다양각색이었다.

수적으로 열세인 영국이 이런 인도를 주민과 같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비결은 영국행정정에 있었다. 각 지방에 파견할 영국인을 뽑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애국심과 자부심에 기반한 공인(公人)윤리였다. 그리고 피지배층을 대할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따뜻하고 공평하며, 청렴해야 한다’는 행동윤리를 요구했다.

이러한 윤리강령을 깊이 새긴 영국 공무원들은 인도 현지에서 무리 없이 치안과 행정을 소화해 냈다. 공무원 1인이 30만 주민을 다스린 것이다. 이들이 다수의 인도인을 수월하게

이끌 수 있었던 데는 ‘공무원들은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인도 민중의 정평(定評)에 있었다. 인도 정부는 독립한 뒤에도 영국 공무원들이 남긴 전통, 그 윤리를 이어가고 있다.

타락한 부패=‘공공의 적’

두 달여 지난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각인시킨 것은 기본과 원칙, 공직자의 주인의식과 청렴성이라는 교훈이다. 기본이 안 된, 원칙을 무시한, 주인의식이 없는, 타락한 부패는 ‘공공의 적’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인 셈이다.

오는 7월 1일 취임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지방의원들이 유념해야 하는 것은 바로 공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이다. 공직자들이 비리에 젖어도 달리 막을 도리가 없었던 것이 지난 20년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였기 때문이다.

축재(蓄財)를 하고, 선거 당시 투자(?)한 본전을 뽐냈다고, 다음 선거를 위해 보편금을 만들어 놓겠다고 불량한 짓을 저지른 단체장은 수두룩했다. 인사와 예산을 쥐고 있는 그들이기에 승진과 사업, 공사를 미끼로 한 ‘빨대’는 언제든 가능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쇠고랑뿐이었다.

오현섭 전 여수시장은 재임시 9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 대법원으로부터 10년 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영어(囹圄)의 몸이다. 그는 특히 4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수지역 전·현직 의원과 도의원 15명, 선거운동원 21명에게 ‘검은 돈’을 뿌려 모두가 사법처리되는 초유의 사태를 불렀다.

화순군은 민선 1~5기 군수 중 재선거에 당선된 이영남 씨를 제외하곤 단 한 명도 성한 이가 없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선거법 위반 등으로 낙마를 거듭했다. 가까운 전북 임실군도 한결 같이 제 무덤을 팠다. 연임을 포함한 4명의 군수 가운데 각서 파문, 금품수사로 인해 모두가 중도하차했다. 대표적인 민선 군수의 ‘잔혹사’인 셈이다. 그 외의 비리 단체장을 일일이 열거한다면 건 지면이 부족할 따름이다.

주인인 주민이 이제 나서야

공무원들의 가리지 않는 비리도 고질화될 지 오래다. 여수시 8급 기능직 공무원은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무려 80여억 원에 이르는 공금을 횡령하고, 광주시에서도 같은 해 4월 총인처리시설 입찰 비리와 관련해 고위 공무원과 대학 교수 등 형사 처벌된 인사만 28명에 달했다.

퇴행적인 후진국형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공인으로서의 주인의식 결여에 있다. 주인이라면 굳이 해 먹으려들지도, 빼앗기려고도 하지 않을 게다.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건

물생심을 더 키운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공무원이 많으면 국민이 괴롭다는 얘기가.

물론 각 자치단체마다 이를 막고, 제어할 감사기관과 지방의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법률에 그 법안테두라 한통속이기에 기대난이다. 이제 주인인 주민들이 직접 나서야 수밖에 없다. 개별적 행동보다는 시민사회단체와 공동보조를 취해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사안에 따라 주민소환제 내지 주민투표제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민소환제와 투표제란 자치단체의 각종 폐단과 현안에 대해 주민 투표로 단체장을 응징하거나 결정하는 ‘처방전’이다. 흔히 제도는 장풍 속의 옷처럼 문어두면 빛이 바래지만 꺼내 입으면 빛이 나는 법이다.

그러나 ‘한 도둑 열 주인 못 지킨다’는 말이 있듯 최선(最善)은 타율적 강제보다 자율적 통제다. 그 건 공인으로서 갖춰야 할 청렴성이다. 공직자에게 ‘뇌물=독약’이라는 인식도 중요하다.

취도 사람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면 후회한다고 한다. 미국 과학자들이 최근 쥐에게 두 가지 먹이감을 놓고 실험한 결과, 좋지 않은 선택에 대해 즉각 반응을 하더라는 것이다. 쥐도 이렇듯 대 할몰며 공복(公僕)이 독약을 택한다면 쥐보다 못한 인간일 뿐이다. 인도 지배 138년 전의 산물인 공직윤리를 새겨야 하는 이유다.

社說

문창극 총리 후보자 자진 사퇴가 답이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잘못된 언행에 대해 해명을 했지만 이를 받아들여서는 국민은 믿지 않는다. 민심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도 그런 면에서 고심이 크다고 한다.

문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심정을 솔직하게 국민에 알려 오해를 풀겠다는 입장이나 워낙 민감한 국민정서를 건드린 탓에 총리 임명동의는 물론 청문회마저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문 후보자를 두둔한다는 것도 후폭풍을 고려한다면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민심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문 후보자 수에 이은 이후 40%대로 떨어진 게 이를 말해준다. 올 들어 처음 발생한 현상이다.

정치권 특히 여당 내의 반대 기류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 내에서 부정적 시각이 초선의원들을 넘어 일부 중진들에게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친박 좌장’인 서청원 의원까지 나

서 문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 것도 그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물론 야당은 문 후보자 총리 임명 강행 땀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낙담시키겠다는 확고한 입장이었다. 종교계·학계, 시민단체의 내정 철폐 및 자진 사퇴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과 여당은 이러한 민심의 흐름과 총리 임명을 강행했을 때 물고 올 극단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낙마에 이은 문 후보의 낙마라는 정치적 타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 세월호 참사 두 달을 넘긴 시점에서 말 그대로 ‘국가 개조’를 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산더미이다. 이 문제가 정치적 충돌을 낳고, 국론 분열을 초래하면 그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어떤 식이든 민심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문 후보자 역시 자진 사퇴하는 게 답이다. 그것만이 국민과 정부에 대한 도리다.

전남도립대 언제까지 예산 쏟아부을 건가

전남도립대에 지원되는 전남도의 예산 규모가 내년도에는 1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따라서 늘어나는 지원 예산에 따른 전남도의 재정 압박도 날로 커지고 있다. ‘돈 먹는 하마’가 되고 만 도립대의 ‘뿔’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전남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도립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는 취약 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설립 취지에 따라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당장 과중한 예산 부담 때문에 6기 전남도정의 대표적인 혁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도는 올해 대학에 82억 원을 지원했다. 교수 50명과 직원을 위한 인건비가 70억 원이나 되는 점도 압박 요인이다. 내년에는 더 심각하다. 비슷한 규모의 지원금에다 학생회관 건축비 48억 원을 더하면 130억 원을 도립대에 쏟아

부어야 할 판이다.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꼴찌인 전남도의 입장에서 이는 애물단지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금은 정부가 경쟁력이 떨어진 지방대학을 수습하는 시점이다. 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고 대학의 존재감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 못한다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물론 경쟁논리만 들이대기 곤란한 점도 있다. 학생 상당수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그 자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도립대의 체질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다. 언제까지나 세금을 쏟아부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재정 투입과 인력 배치는 없었는지 세밀하게 살펴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

더불어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방향으로 학과를 통합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도립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은편칼럼



서미정 (사)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회장

사람의 생명가치 최우선 하는 안전한 사회를

들 모습에 어느새 훌쩍 성장했는지 대견스럽고 기특하여 눈물이 났다. 자식을 낳는 곳에 보내놓고 불안함과 허전함을 느끼는 것은 모든 부모가 똑같은 거라 여기며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인 아들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건강하게 무사히 군생활 잘 마치고 오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고 있는 요즘,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 중에 필자를 슬프게, 안타깝게 하는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다. 한 분 한 분의 삶이 한권의 책으로, 도서관으로 상징되는 우리 어른들이 요양원의 간호 인력 부족과 소방안전 총체적 부실로 화재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는 요양원 화재 사고 이후 전국 요양병원을 일제 점검하고 뒤늦게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안전관리에 소홀히 하며 설마 하는 안이한 태도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예측된 사고의 위험이었다. 이제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확실한 안전의식을 가지지 않는 한 사고가 발생하는 방법만 바뀔 뿐 반복되는 일이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슬그머니 모두 없었던 일처럼 잊어버리기 전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 4월에는, ‘3등급 장애인’이라는 판정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자신의 집에서 홀로 있던 중 발생한 화재로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 고 송국현 씨는 53세, 뇌병변장애 5급, 언어장애 3급의 중증장애 3급이다. 연이던 전남도민안타까운 소식들, 중증장애인 고 오지석씨는 호흡기 없이는 5분도 숨 쉴 수 없는 근육병을 앓고 있다. 제한된 활동보조시간으로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어머니가 집 벼운사이 호흡기가 빠져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다. 그동안 아들의 간병과 치료에만 매달려온 홀어머니는 “지식이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며 가슴치며 오열하였다.

활동지원제도 도입 10년, 현 정부 들어 더 강화되었던 장애등급제 심사로 장애

있는 사람이 장애 없는 사람으로 둔갑하면서 사람의 생명이 위급하고 이미 예측 가능한 일들이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장애등급제에 의한 사회적 타살! 언제까지 반복 할 것인가? 죽음을 부르고 있는 장애등급제 당장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활동지원 사각지대 피해자 더 이상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1차적 책임은 의무는 국가에게 있으며, 이번 6.4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역의 새로운 일꾼들도 사람의 생명가치 최우선하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막중한 책임과 의무로 사회적 영역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를 시급히 정비하고 마련해야 한다.

.....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뉴욕의 사과, 니주의 배

했다. 1971년 뉴욕 관광국이 뉴욕시를 브랜드화 하기 위한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관광국이 빅 애플을 닮은 이미지로 선정하면서 전 세계에 이 별명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뉴욕에 사과 과수원이 있는지, 또는 사과가 많이 생산되고 소비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뉴욕에는 사과와 관련한 명물이 존재한다. 뉴욕 5번가에 있는 독특한 미학을 자랑하는 애플 스토어 건물 이 바로 그것이다. 거대한 유리 큐브 형태의 이 스토어의 정면에는 한 입 베어 먹은 사과 모양의 애플 로고가 박혀 있다. 이 스토어는 고인이 된 애플사의 전 CEO 스티브 잡스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지만 정작 그는 이 스토어의 개장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잡스의 간결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 철학이 담겨 있는 이 스토어는 이제 뉴욕을 찾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명소로 자리를 잡았고 필자도 지난 해 들른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포도의 고장 안성, 사과

의 도시 대구 등 과일과 밀접하게 연관된 도시들이 존재한다. 사과와 배는 한국을 대표하는 과일이다. 차레스에서도 홍동백서(紅東白西)에 따라 진설(陳設)되는 과일이기도 하다. 서양에도 배가 있던 하지만 조종박처럼 생겨 우리의 배와는 모양이 좀 다르다. 국내에서 ‘배’하면 생각나는 도시는 바로 나주다. 나주 배를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아무데서나 배를 못 사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맛이 뛰어나다. 나주 배의 최초 재배기록은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다. 나주 배가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된 시기는 1929년 개최된 조선박람회다. 여기에 나주배가 처음 출품되어 동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그 명성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국내 콘텐츠산업의 총괄 지원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최근 배의 고장이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빛가람)가 위치한 나주로 이전해 이달 2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국내 콘텐츠 산업의 나주 시대를 개막했다.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처럼 세계적인 글로벌 콘텐츠 중에는 한 지역의 문화 콘텐츠에 뿌리를 둔 사례들이 많다. 콘진원은 나주 이전을 계기로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공연 등 고품격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데도 힘쓸 것이다.

조선 중기 이종환이 지은 ‘택리지’에 보면 나주의 금성산이 서울의 삼각산과 비슷하고 남쪽으로 영산강과 맞닿는 나주 강의 지세가 한양과 닮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주를 일컬어 작은 서울이라는 뜻의 소경(小京)이라 부른다는 내용이 나온다. 뉴욕은 미국의 수도는 아니지만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세계의 문화 수도도 불리고 있다. ‘빅 애플’의 도시 뉴욕이 세계의 수도가 된 것처럼, 콘진원이 이전을 계기로 명품 배의 고장 나주가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넘치는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지역 속에 뿌리를 내려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無等鼓

요즘은 평행우주론이 대세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1Q84’와 할리우드 만화영화 ‘슈렉 포에버’도 그랬지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도 평행우주를 소재로 삼고 있다.

광대한 우주에는 ‘나’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계가 무수히 존재하며, 그 세계는 내가 ‘선택을 할 때마다’ 새로이 생겨난다는 게 평행우주의 기본 개념이다. 다소 낯설지만, 최근 물리학계의 핫 이슈

로, ‘왼쪽과 오른쪽이 뒤바뀐’ 또 다른 우주로 옮겨간단. ‘슈렉 포에버’에서는 악당의 꾀에 빠진 슈렉이 현실과는 완전히 판판인 세계에 도착한다.

일본의 천재 작가 오즈오치가 지난 3월 신인인책 다른 이름으로 슬그머니 내놓은 ‘엠브리오 기담’에도 죽은 후 부활해 몇 번이고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가 나온다. ‘라피스 라줄리 환상’이라는 에피소드에서 주인공 ‘린’은 여형 동중 만난 노파의 증

리셋

손자를 구해준 보답으로 노파로부터 ‘파란 돌’을 선물받는다. 이후 린은 죽은 뒤 몇 번이고 되살아나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사실 이런 종류의 세계는 누구나 한 번쯤 꿈꿔왔을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세상 주목하게 된 것은, ‘평행우주’라는 개념이 소설과 영화라는 강력한 대중매체를 통해 전세계에 확산되면서 ‘유일한 우주, 유일한 신’이라는 기존의 경직된 우주관에 서서히 금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론은 언제나 당시의 시대 상황과 궤를 같이 해 왔다.

앞으로의 변화가 궁금하다.

/홍행기 경제부장redplane@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